



500년 된 느티나무에 핀 벚꽃 충남 청양군 목면 본의리에 있는 500년 된 느티나무에 벚꽃이 피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민들은 “느티나무에 벚꽃이 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며 경사라는 반응이다. [연합뉴스]

# 돈봉투 의혹 ... 검찰, 손학규 조사키로

### 돈 받았다는 3명 진술 확보 “박원순 후보 지지 요청 회의 때 민주당 간부가 100만원씩 돌려” 손학규 측 “검찰 주장 못 믿겠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주재한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돈봉투가 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손 전 대표를 소환해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 있던 지난해 10월 민주당 서울 지역위원장 30여 명을 당사로 불러 “박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호남 향우회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등 어려움이 많으니 지역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한 뒤 위

원장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지역위원장 세 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손 전 대표 근처에서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사무부총장 최광웅씨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지역위원장 세 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손 전 대표 본인이 주재한 회의에서 돈봉투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손 전 대표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며 “해외방문 중인 손 전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 후보 선거캠프 조직특보 서모씨가 돈봉투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체포를 시도했으나 서씨가 도주해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손 고문 측 관계자는 “검찰 주장을 믿

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돈 전달 여부 자체에 대해 손 고문은 전혀 아는 바 없다”면서 “당시 일부 위원장이 ‘선거가 다가왔는데 뭐 없느냐’며 돈을 바라는 모습을 보이자 손 고문은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고 해당 위원장을 책망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현재 손 고문은 유럽을 방문 중이다.

◆박원순-나경원 후보 비방 신원 확인 요청  
=한편 검찰은 10·26 선거 때 트위터를 통해 박원순-나경원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의 신원 확인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 트위터 본사에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요청을 했다. 검찰의 조치는 지난 4·11 총선 때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트위터 본사의 회신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사안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안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법무부에 형사 사범공조 요청도 했다.

박진석·채윤경 기자 kailas@joongang.co.kr

## MB 장남 서면조사 받았다

(이시형)

### 이달 초 내곡동 땅 매입 관련 검찰, 편법 증여 의혹 수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이달 초 대통령의 장남 시형(34)씨를 한 차례 서면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시형씨를 상대로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의 편법적인 증여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해 5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비용 54억원 중 11억원을 부담한 시형씨는 검찰 서면조사에 앞서 의혹을 해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형씨는 소명서와 서면조사를 통해 “내곡동 부지 매입 과정에 특혜나 위법사항 등의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시형씨 등이 사저 부지 등에 대한

매입가격이 결정된 경위를 “감정가격이 나오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소유주가 처음에 60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싸게 산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아들에 대한 예우로 서면조사를 한 건 아니다”며 “필요한 경우 소환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실제 계약을 담당했던 경호처 재무관도 수차례 불러 조사했고, 내곡동 땅의 원주인에 대해서도 e-메일 조사와 전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실무 총괄을 맡은 김인중(67)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소환해 경호처의 추가비용 부담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시형씨와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0월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정원업 기자 wannabe@joongang.co.kr

## 영화처럼 털린 10억대 그림

### 미술가 김구림 장흥 작업실 작품 20여 점 도난당해 CCTV 없는 한 곳 창 깨고 침입 틀에서 그림들만 짝 오려가



더러.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구림은 한국의 전위 예술 1세대다. 1969년 최초의 실험영화 ‘1/24초의 의미’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의미만큼 그의 작품이 시장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옥션 최은석 미술품경매팀장은 “김구림은 한국 미술사에서 이미 한 자리를 차지한 작가다. 그러나 대중적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작품을 10여 건 경매했지만 200만원 내외의 소품뿐이었다”고 말했다.

김구림의 전속화랑에서는 사정을 잘 아는 이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 UM갤러리 엄은숙 대표는 “김구림은 시장보다는 미술관급 작가다. 해외의 반응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최근엔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을 통해 김구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권근영 기자 young@joongang.co.kr

## KBS 교향악단 법인화 추진

파행 운영 중인 KBS 교향악단의 운영방안이 법인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금까지 KBS가 전적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대신 일반 기업처럼 독립 경영체제를 갖출 전망이다.

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는 2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KBS 교향악단의 법인화를 추진

하기로 했다. 1956년 창단된 KBS 교향악단은 국내의 대표적 오케스트라다. KBS 교향악단 관계자는 이날 “KBS 교향악단의 법인화를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KBS교향악단은 2010년 합신의 음악감독이 취임한 이래 극심한 내용을 겪어왔다.

KBS 이사회는 다음 달 이사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기현 기자 emckk@joongang.co.kr

가벼운 산행부터 암벽등반까지  
**장소에 상관없다!**

일반 등산에도, 익스트림 환경에도 최적화된 멀티 Tool 배낭-  
전문가의 경험을 살려 전문가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NEPA 알파인 아방가르드**

4월 네파 봄맞이 프로모션 (정상상품에 한함)  
이벤트 1 | 오토캠핑 10%~30% 할인(오토캠핑 취급점에 한함)  
이벤트 2 | 바이크의류 30% 할인(소진시 까지)(바이크의류 취급점에 한함) / 2012년 제복은 정상가  
이벤트 3 | 한 의원 반납시 2PM 방수자켓(71A0503, 71B0503) 30% 보상판매 3월 1일 ~ 5월 31일  
이벤트 4 | 신원카드 5개월 무이자 할부혜택(5만원이상 구매시) ~5월 31일 \*백화점 및 아울렛 매장 제외

**NEPA 알파인 아방가르드 40**

- KARABINER: 강도상승에 유용한 CE 공간 인출이론을 채택한 크리밍 전용 비스용 카라비너 장착
- ONE-TOUCH BUCKLE: 신속한 탈착이 가능한 웰타치 버클 채용
- EQUIPMENT LOOP: 스틱, 펌프, 아이스axe, 헤드 램프 등 다양한 장비를 걸 수 있는 시스템
- EXTENSION STRING: 부피조절 가능한 사이드 러 스트링 시스템
- QUICK OPEN: 헤드를 열지 않고 신속한 수납이 가능한 전면 개폐자물 채용
- VX FABRIC: VX원단 사용으로 찢김 방지

이벤트카드 35 / 7267509    프루트 42 / 7267510  
이벤트카드 45 / 7267507    이벤트카드 55 / 7267506    이벤트카드 40 / 7267508

문의전화: 네파 콜센터 | 080-3407-0288